



영성과 삶

루히 연수원



제 1 권

영성과 삶

루히 연수원

루히 시리즈

루히연수원이 발간한 연속 출판물은 전 세계 청소년과 성인이 봉사역량을 개발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 발전에 공헌하려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돕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 3권 바하이 어린이교실 교사양성 과정, 제 5권 주니어유스 그룹 애니메이터 양성 과정에는 상위 단계의 분지 과정이 추가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세계 전역에서 교육 현장의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루히연수원의 연속 출판물은 개정을 거듭하고 있으며, 목록의 책 또한 계속 추가될 것입니다.

- 제 1 권 **영성과 삶**
- 제 2 권 **봉사자로 일어나기**
- 제 3 권 **어린이 교육 1단계**
 - 어린이 교육 2단계 (분지 과정)
 - 어린이 교육 3단계 (분지 과정)
 - 어린이 교육 4단계 (분지 과정)
- 제 4 권 **두 현시자**
- 제 5 권 **주니어유스 잠재력 끌어내기**
 - 최초의 총동 (분지 과정)
 - 서클의 확장 (분지 과정)
- 제 6 권 **대업의 진리 나누기**
- 제 7 권 **봉사의 길 함께 걷기**
- 제 8 권 **바하올라의 성약**
- 제 9 권 **역사적 안목**
- 제 10 권 **활력 있는 공동체 구축하기**
- 제 11 권 **물질적 수단**
- 제 12 권 **(발간 예정)**
- 제 13 권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 제 14 권 **(발간 예정)**

Copyright © 2008, 2020 by the Ruhi Foundation, Colombia
All rights reserved. Edition 4.1.2.PE published in August 2021
Printed in Korea

Originally published in Spanish as *Reflexiones sobre la vida del espíritu*
Copyright © 1987, 1995, 2008, 2020 by the Ruhi Foundation, Colombia
ISBN 978-958-59880-3-3

Permission for a limited printing of this book in Korean has been granted to the Training Institute of Korea by the Ruhi Institute.

Ruhi Institute
Cali, Colombia
Email: instituto@ruhi.org
Website: www.ruhi.org

한국 바하이 출판재단
서울 용산구 후암로 12 (우 04331)
전화: +82-2-754-1947
nsakorea@bahai.or.kr

목 차

조교를 위한 소고 / 1

바하이 경전 이해 / 7

기 도 / 25

삶과 죽음 / 45

조교를 위한 소고

루히연수원^{Ruhi Institute}이 발간한 연속 출판물의 첫 번째 책 《영성과 삶》을 활용한 지역사회의 수가 지난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많은 경우 지인들이 소그룹을 이루어 이 책을 함께 읽고 공부했습니다. 대개는 스터디 서클에서 정기적으로 만났으며, 강도 높은 스터디를 위한 캠페인이나 공휴일을 활용한 캠프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그룹 중 한 사람은 조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조교와 다른 참여자의 관계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아닙니다. 다 같이 배움을 얻기 위한 과정에 의식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조교가 그룹 토의의 내용에 개입하지 않는 수동적 촉진자도 아닙니다. 조교는 연수원의 연속 과정을 미리 밝아 충분한 과정을 이수했으며, 연수 과정이 원하는 봉사 활동을 수행했기에 그룹 일원들이 학습 자료의 목표를 이루도록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1권의 조교로 활동하는 사람은 이따금 이 책의 서두에 제시된 개념들을 검토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연수 과정을 밟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하이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받아들인 대업에 봉사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희망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과정을 바하이 신앙에 대한 종교적 탐구의 출발점으로 간주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바하이가 추구하는 이상에 이끌려,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와 노력을 더 잘 알고 싶다는 동기에서 첫 번째 과정을 밟아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 중 특히 청년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들은 바하이 커뮤니티가 촉진하는 한 두 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봉사 역량의 개발을 희망하며 첫 단계로서 이 과정을 밟곤 합니다.

이 과정을 시작하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명확히 해야 할 점은 루히연수원의 연속 과정은 인류에게 제공될 봉사의 한 가지 길을 펼쳐 보인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보폭에 맞게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중의 도덕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영적, 지적 성장을 돌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변형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진보해 나간다는 것은 이해와 지식, 영적 자질과 칭찬할 만한 태도, 다수의 능력과 기술을 요구하는 여러 역량을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본 연수원 책이 의존하는 지식의 원천은 한편으로는 바하이 신앙의 가르침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적, 영적 문명 발전에 관해 바하이 커뮤니티가 전 세계적으로 축적해 온 경험입니다. 개개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새로운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가에 관한 바하올라의

방대한 비전은 본 연수원의 모든 책에 영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배경에 관계없이 참여자들이 이 비전을 받아들이는데 개방적일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 점을 연수원의 모든 책, 각 단원이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신조와 이념들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추종자들을 끌어당기려 분투하고 있는 현 세계 속에서 바하이 신앙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루히 연수원의 의도에 관해 참된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개종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인가?” “나는 종교를 갖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인가?”가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접할 때 조교는 위에서 언급한 본 연수원 과정의 목적을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바하이라면 자신의 벗들이 공동체에 합류하는 걸 보기 희망할 것이며,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동시에 그들이 믿는 신앙의 가르침은 개종의 시도에 관여하는 것을 명백히 금하고 있습니다. 조교는 이렇게 덧붙일 수 있습니다. 연수원 과정이 열어 보이는 봉사의 길,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분명 바하올라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력을 계속해서 심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재는 그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러나 가르침의 수용과 신앙의 결정은 자유롭고, 어떤 압력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각 개인이 진지하게 숙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연수원의 첫 번째 책이 이해의 사안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은 그래서 놀랍지 않습니다. 실제 연수원의 모든 책을 관통한 핵심적 주제는 바로 이해의 증진입니다.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평생 동안 수천 쪽의 글을 읽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원 ‘바하이 경전 이해’는 매일 경전의 구절을 읽고, 그 의미에 관해 명상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봉사의 길에 들어설 때 이 습관은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도움이 되어 줄 것입니다. 참여자들을 첫 번째 단원으로 인도할 때 조교는 이해의 주제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하이 경전은 심오한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성구는 무한히 펼쳐질 수 있는 다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이해의 확실한 종착지에 도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전을 처음 읽을 때 우리는 구절의 즉각적 의미에 관한 기본적 이해를 얻습니다. 첫 번째 단원의 제 1장은 이 점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세계의 발전은 순수하고 선한 행위와 칭찬할 만하며 품위 있는 행실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라는 경전 구절을 읽은 후 참여자들은 단순한 질문을 접하게 됩니다. “세계의 발전은 어떻게 달성할 수 있습니까?” 언뜻 보기에 이런 유형의 질문과 연습 문제는 상당히 단순하게 들릴 것입니다. 다년간 경험에 비추어볼 때 연수원이 이런 방식으로 경전의 공부를

시작하도록 결정한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점은 하나의 성구가 담고 있는 여러 층의 진리에 도달하려는 성급한 마음에서 도리어 명백한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차적 차원의 이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그룹의 협의에 필수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것은 사고의 통일성을 강화합니다. 사고의 통일성은 개개인의 의견이 신성한 지혜의 조명을 받도록 허용할 때 얼마든지 도달 가능한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많은 경우 성구의 즉각적 의미를 파악하느라 각 단어를 문맥에서 단어를 떼 내어 장시간 논의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참여자들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유익한 것은 문장과 구절의 맥락 내에서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즉각적 의미의 차원을 넘어, 성구가 담고 있는 주제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각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지 보여주는 사례가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복잡하지 않은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2장에서 참여자들은 방금 읽었던 구절에 비춰 어떤 구체적 특징이 칭찬할 만한 것인지 결정하도록 질문을 받습니다. 4장에서 참여자들은 대표적인 다섯 개의 미덕을 이름 해 보라는 질문에 답한 후,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 그 중 어느 하나의 미덕이라도 얻는 것이 가능한지 스스로 성찰해 보도록 요청받습니다. 경전에는 진실성이 “인간 모든 미덕의 토대”로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단원은 성구의 함의를 숙고해 보도록 도전을 가함으로써, 참여자들이 한 차원 더 이해를 심화하도록 유도합니다. 2장에서는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진술이 참인지 여부를 묻습니다. 여기서 의도는 단순히 여러 의견을 끌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조교는 잠시 멈추어, 참여자들이 어떤 이유로 그런 답을 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이 진술이 거짓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선 장의 첫 번째 인용구와 모순되기 때문이라는 점, 이것이 그룹의 협의가 도달해야 할 결론입니다. 바하이들이 자신의 죄를 타인에게 고백해도 되는가에 관한 질문은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 질문은 ‘고해’를 속죄의 한 가지 수단으로서 삼는 것을 금하는 신앙의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조교는 “그대가 소환되어 심판받기 전 나날이 자신의 행실을 되돌아보라”는 성구의 함의에 관해 참여자들이 협의할 때 이 금지 사항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단원의 연습문제들은 경전 구절에 함축된 모든 차원의 의미를 망라해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조교가 반드시 미리 숙고해야 할 것은 각각의 연습에 얼마나 많은 논의를 할애할 것인가입니다. 연관성을 지닌 주변적 개념을 과다하게 소개함으로써 협의를 길게 늘이는 것은 사실상 교재의 학습 효과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그룹은 학습의 진보에 합당한 속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곧 참여자들은 각자의 가능성에 맞게 학습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선명한 감각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조교는 연습문제를 충분히 분석하지 않은 채 각 장을 피상적으로 빠르게 진행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질문에 단순히 답을 채우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했던 그룹은 결코 지속적인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언급할 점이 있습니다. 조교는 그룹의 모든 참여자가 연수원 자료가 촉진하는 배움의 과정에 참여한 상태로 남아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참여자들이 반드시 말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게 배려하면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종종 도전적인 일이 됩니다. 조교가 처음부터 유념해야 할 점은 “당신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와 같은 질문을 묻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유형의 질문은 앎과 진리를 단지 견해의 차원으로 끌어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룹 일원들 사이의 협의가 실질적인 이해의 증가로 이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책의 두 번째 단원은 영적 삶에 필수적인 또 하나의 습관을 다룹니다. 그것은 바로 규칙적인 기도입니다. 이 단원의 서두에는 “봉사의 길”이라는 개념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 갈 때 우리는 위에서 언급했던 이중의 목적의식으로 고취되어야 합니다. 참여자들이 검토하게 될 첫 번째 성구의 인용문은 이 목적의 본성에 대해 통찰을 제공하며, 이어지는 장에서 이 주제는 더 정교하게 다루어집니다.

이 단원은 전체적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탐구하도록 유도합니다. 여기서도 성구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도록 돕는 질문과 연습문제가 제시됩니다. 이 단원을 공부할 때 조교는 과거의 해석과 수행 방식에 뿌리를 둔 몇몇 관념을 분석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지닐 수 있는 의심을 해소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일부 종교적 전통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의례와 형식은 내적 상태의 중요성을 점점 퇴색시켰습니다. 육체가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 단원은 무엇보다 “하느님과 대화”하고,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려는 욕구를

참여자들의 내면에 일깨우기를 희망합니다. 기도의 상태에 들어선다는 것의 의미,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취해야 할 태도, 혼자서든 모임 속에서든 기도할 때 조성해야 할 주변 환경 등을 차례로 소개합니다. 이어서 참여자들은 공동의 예배가 낳는 영적인 힘에 관해 숙고해 본 후, 기도와 예배를 위한 모임의 호스트 역할을 고려해 보도록 요청 받게 됩니다.

이 책의 마지막 단원 “삶과 죽음”은 봉사의 길을 걷는데 대한 한층 더 강한 헌신을 끌어내고, 보다 심오한 의미를 일깨우기를 희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봉사는 삶의 전체적 맥락 속에서 그 의미가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삶은 지상에서의 삶을 넘어 영원히 지속됩니다. 영혼은 하느님의 여러 세계를 거쳐 진보해 나갑니다. 기술 연마와 구별되는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이들은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증대해 가야 합니다. 참여자들의 의식이 성장할 때 비로소 그들은 스스로를 학습의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주체”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을 경험이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단원의 각 장은 바하이 경전에서 발췌한 성구들로 시작해, 몇 개의 연습문제들을 제시합니다. 이 단원에서 소개된 성구의 언어는 앞선 단원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어려운 단어들에 골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참여자들이 각 장의 핵심 개념을 파악하도록 조교가 도움을 줄 것이며, 각 장에 제시된 연습문제들은 정확히 그것을 끌어내려 합니다.

이 주제의 본성 때문에 구체적 사례에 관한 연습 문제는 드물며, 대부분 개념적 차원에서 다루어집니다. 어떤 질문은 신속하고 명쾌한 답을 내릴 수 없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질문은 해당 주제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려는 목적으로 제시되며, 질문에 대해 참여자들이 숙고해 보는 것으로 학습 목적이 충족됩니다.

이 단원의 첫 몇 장은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핵심 개념은 영혼이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 빛과 거울의 관계에 비유됩니다. 거울 표면을 뒤덮은 먼지나, 거울이 언젠가 깨진다는 사실은 빛의 고유한 광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죽음은 단지 조건의 변화일 뿐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후 영혼은 자신의 창조자를 향한 여정에서 계속 영원히 진보해 나갑니다.

뒤이은 장에서는 인간 삶의 목적, 곧 하느님을 앎과 그분의 현존에 도달함에 관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두 개의 방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전체 논의가 진행됩니다. 첫째는 이 세계에서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이고, 둘째는 사후 영혼의 여정은 어떤 것인가입니다. 인간 영혼은 하느님의 증적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이름과 속성을 되비출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사실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고유한 역량은 어디까지나 잠재적 형태로 존재합니다. 인류를 인도하기 위해 인류사에 때때로 출현하시는 성별된 존재들, 곧 하느님의 현시자들의 도움을 통해서만 인간의 이 놀라운 역량은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인류에게 제공하는 교육을 통해 우리 내면에 숨은 보석들은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사후 영혼의 여정에 관해 숙고해 볼 몇 가지 개념이 소개됩니다. 하느님께 충직한 이들은 진정한 행복에 도달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끝을 알 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늘 서로를 용서해야 하고, 타인에 대한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후 영혼은 계속 진보해 나간다, 우리가 이 세계에서 발달시켰던 영적 기관들은 내세에서 우리에게 힘과 원조가 된다, 내세에서도 우리는 사랑했던 이들을 알아보며, 현세에서 우리가 영위했던 삶을 기억한다, 내세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성화된 영과의 사귀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단원은 바하올라 경전에서 발췌한 성구로 마무리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에서의 부침으로 인해 슬픔에 빠지지 말 것을 그분은 우리에게 강력히 권고 하셨습니다. 참여자들은 이제껏 공부한 내용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성찰해 보도록 요청 받게 됩니다.

바하이 경전 이해



목적

매일 경전의 성구를 읽고
그 의미를 성찰하는 습관을 강화한다.

제 1 장

이 단원의 목적은 매일 경전의 성구를 읽고 그 의미를 성찰하는 습관을 개발하고 강화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경전의 한 구절을 읽은 후, 문답을 통해 그 구절을 재확인하는 단순한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쉽고 단순하지만 주어진 성구의 의미를 성찰하고 암기하기에 좋습니다.

“세계의 진보는 순수하고 선한 행위와, 칭찬할 만하고 품위 있는 행실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¹

1.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나요?

“바하의 사람들이여,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이들이 가는 길을 걷지 않도록 주의하라.”²

2. 우리는 누가 가는 길을 걸어서는 안 되나요?

“존재의 아들이! 그대가 소환되어 심판받기 전 나날이 자신의 행실을 되돌아보라.”³

3. 소환되어 심판받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형제들이여! 말이 아닌 행동으로 스스로를 장식하라.”⁴

4.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을 장식해야 하나요?

“거룩한 말과 순수하고 선한 행위는 천상^{天上} 영광의 하늘로 올라간다.”⁵

5. 거룩한 말과 순수하고 선한 행위는 어떤 결과를 낳나요?

제 2 장

방금 공부한 성구 인용문에 관한 추가 연습입니다. 그룹 내에서 성구의 의미를 더 깊이 성찰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니, 기계적으로 답하지 마세요. 모든 문항을 오래 논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습 중 어려움이 있으면 조교가 그것을 더 면밀히 탐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1. ‘칭찬할 만하다’는 것은 권장할 가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중 어떤 것이 칭찬할 만한 것인가요?

- _____ 성실한 근로자가 되는 것
- _____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
- _____ 학문과 배움에 열심인 것
- _____ 거짓말 하는 것
- _____ 태만한 것
- _____ 다른 사람을 돕는 것

2. ‘그대가 소환되어 심판받기 전에’ 라는 구절은 무엇을 뜻하나요?

3. 다음의 진술 중 참인 것은 무엇인가요?

- _____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 _____ 타인의 의견과 부합할 때 그것은 진리다.
- _____ 하나님의 가르침과 부합할 때 그것은 진리다.

4. 다음 중 순수하고 선한 행위는 무엇인가요?

- _____ 어린이들을 돌보고 교육함
- _____ 절도 행위
- _____ 다른 사람들의 발전을 위해 기도함
- _____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작은 거짓말을 함
- _____ 다른 사람들을 돕고 보상을 기대함

5. 다음 중 말과 행동이 다른 상황은 무엇인가요?

- _____ 어떤 사람이 모두가 융합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 _____ 어떤 사람이 정결한 삶의 가치를 칭송하면서도 결혼 밖의 성관계를 갖는다.
- _____ 어떤 사람이 음주를 금하는 신앙을 따른다고 천명하면서 이따금 음주를 한다.
- _____ 어떤 사람이 양성 평등을 옹호하면서 남성과 동일 업무를 수행한 여성에게 고용주로서 임금을 덜 지급한다.

6. 바하이가 다른 사람에게 고해하는 행위는 허용되나요?

7. 고해를 하는 대신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8. ‘천상 영광의 하늘’은 무엇을 뜻할까요?

9. 악한 행위는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0. 악한 행위는 행위자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 3 장

아래에 성구 인용문을 읽고 성찰해 보세요. 암기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진실성은 인간 모든 미덕의 토대다.”⁶

1. 인간 모든 미덕의 토대는 무엇인가요?

“진실성 없이는 하느님의 모든 세계에서 어느 영혼에게도 진보와 성공이 불가능하다.”⁷

2. 진실성 없이는 무엇이 불가능한가요?

“사람들이여! 진실성으로 그대의 혀를 단장하고, 정직의 장신구로 그대의 영혼을 장식하라.”⁸

3. 무엇으로 우리의 혀를 단장해야 하나요?

4.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장식해야 하나요?

“그대의 눈은 순결하고, 손은 충직하며, 혀는 진실하고, 마음은 깨어 있으라.”⁹

5. 우리의 눈은 어떠해야 하나요?

우리들의 손은 어떠해야 하나요?

우리들의 혀는 어떠해야 하나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나요?

“하느님의 성소에 거하며,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좌정한 이들은 비록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아무리 이웃이 비열하고 무익한 자라 해도, 그 이웃의 재물에 손을 뻗어 불법적으로 그것을 취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¹⁰

6. 우리는 설령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하나요?

제 4 장

제 2 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래의 연습 문제 중 일부는 명확한 답을 요구합니다. 이때 답에 의문이 생기면, 조교가 참여자들이 사고의 융합에 이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 외 연습 문제들은 그룹이 논의하는 것 자체로 가치 있으며, 단일한 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래 3번 질문은 첫 번째 유형, 6번 질문은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합니다.

1. 진실성은 인간 모든 미덕의 토대입니다. 인간 미덕을 다섯 개 꼽아 보세요.

2. 진실성 없이 위의 미덕들을 획득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3. 아래의 진술 중 참인 것은 무엇인가요?

- 거짓말을 하면서도 정의로울 수 있다.
-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도 충직한 손을 지녔다.
- 충직한 손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물건에 결코 손을 대지 않는다.
- 음란물을 보는 것은 순결한 눈을 지니라는 바하올라의 가르침에 위배된다.
- 진실성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 정직은 영혼의 장신구다.
- 진실하지 않은 사람도 영적으로 진보할 수 있다.
- 이따금씩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 허기질 때 도둑질을 하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 허용될 수 있다.
- 나중에 다시 돌려줄 생각으로 주인의 허락 없이 잠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다.
- 정직하게 행동하고, 공명정대하며, 진실할 때 우리의 마음은 깨어 있을 수 있다.
- 약간의 속임수 없이 사업을 번창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4.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은 가능한가요?

5. 거짓말을 할 때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6. 모두가 진실하고 정직하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 5 장

다음의 성구들을 공부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구의 암기는 매우 보상이 큰 행위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쉽게 암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럼에도 노력을 기울인다면 성구의 핵심적인 의미를 머리와 가슴에 각인시킬 수 있고, 가능한 한 원문에 가까운 단어를 사용해 그 의미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친절한 말은 인간의 가슴을 끌어당기는 천연 자석이다. 그것은 영^靈의 양식이며, 말에 의미의 옷을 입혀 준다. 그것은 지혜와 이해의 빛을 발하는 샘이다…….”¹¹

1. 친절한 말은 어떻게 묘사될 수 있나요?

2. 친절한 말은 말의 전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주님께 사랑받는 이들이여! 이 성스러운 섭리의 때^{Dispensation}에 갈등과 불화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누구든 이를 어기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하느님의 은혜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다.”¹²

3. 위 성구에 의하면, 이 섭리의 때에 허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4.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스스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나요?

“이 거룩한 날에 하느님께 사랑받는 이들 사이의 불화와 반목, 언쟁과 이간, 무관심보다 이 대업에 더 큰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¹³

5. 어떤 상태가 하느님의 대업에 가장 큰 해를 끼치나요?

“말로만 우정을 언급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지니, 그대가 가는 길에서 마주친 모든 이들을 향한 자애의 열기로 그대의 가슴이 타오르게 하라.”¹⁴

6. 어떤 형태의 우정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나요?

7. 우리의 가슴은 무엇으로 타올라야 하나요?

“전쟁의 생각이 일어나거든, 보다 강력한 평화의 생각으로 물리쳐라. 증오의 생각은 더 강력한 사랑의 생각으로 허물어뜨려야 한다.”¹⁵

8. 전쟁에 대한 생각을 무엇으로 물리쳐야 하나요?

9. 증오에 대한 생각을 무엇으로 허물어뜨려야 하나요?

제 6 장

앞 장에서 공부한 성구 인용문을 기억하면서, 아래 연습문제를 다루세요.

1. 친절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자식의 역할을 하나요?

2. 아래 진술 중 친절할 때의 표현인 것은 무엇인가요?

_____ “귀찮게 좀 하지 마!”

_____ “이것도 모르니?”

_____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_____ “못된 아이 같으니!”

_____ “친절히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_____ “지금 당신에게 어떤 시간도 할애할 수 없어요. 바빠요.”

3. 다음의 상황 중에서 갈등과 언쟁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_____ 협의 중 어떤 주제에 관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

_____ 협의 중에 두 사람이 불편한 기색으로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_____ 두 사람이 서로 말을 섞지 않는 사이가 되어 기도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

_____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팀 일원들이 끊임없이 불평을 한다. 각자 다른 사람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4. 다음 중 소외를 나타내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 _____ 두 친구가 길에서 서로와 마주쳤으나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
- _____ 누군가 기도모임에 도착했는데,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다.
- _____ 그룹의 일원 두 명이 서로 공손히 대하긴 하지만,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기를 꺼린다.

5. 다음의 진술이 참인지 결정하세요.

- _____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정확히 말해야 한다. 설사 그들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 _____ 갈등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괜찮다.
- _____ 갈등은 사랑과 친절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 _____ 말은 사랑과 함께 전달되었을 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 _____ 상대방이 싸움을 먼저 걸어 왔을 때 그와 싸우는 것은 괜찮다.
- _____ 아프거나 슬플 때는 사람들을 날카롭게 대할 권리가 있다.
- _____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들을 비웃는 것은 친절하지 못하다.
- _____ 친구 사이에 불편한 느낌이 생기면 두 사람 모두 서로와 더 가까워지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_____ 친구 사이에 불편한 느낌이 생기면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제 7 장

아래 성구를 공부하고 암기하세요.

“.....험담은 가슴의 빛을 끄고, 영혼의 생명을 소진한다.”¹⁶

“그대 자신이 죄인일진대, 남의 잘못을 호흡하지 말라.”¹⁷

“남이 너에게 나쁜 말 하는 것을 듣지 않으려면, 나쁜 말을 하지 말고, 네 자신의 잘못이 커보이게 하지 않으려면 남의 잘못을 과장하지 말라.....”¹⁸

“존재의 아들이! 어찌하여 너는 자신의 잘못을 잊고, 남의 잘못을 탓하느라 분주할 수 있느냐? 누구나 이 짓을 하면 나의 저주를 받노라.”¹⁹

1. 험담하는 행위는 행위자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2. 다른 사람의 죄를 곱씹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하나요?

3. 남의 결점을 크게 과장하면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4. 남의 결점이 생각날 때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요?

제 8 장

앞 장의 성구 인용문을 기억하면서 아래 문제를 다루세요.

1. 다른 사람의 결점에 주의를 집중하는 영혼의 진보 상태는 어떠한가요?

2. 험담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3. 한 친구가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보통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요?

4. 다음의 진술이 참인지 여부를 결정하세요.

_____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실제 잘못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험담이 아니다.

_____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장점과 결점을 함께 말한다면 그것은 험담이 아니다.

_____ 험담은 우리 사회의 일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았으므로, 우리는 험담을 피할 수 있는 규율을 훈련해야 한다.

_____ 상대방이 우리의 말을 다른 곳에 옮기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제 삼자에 대한 험담은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

_____ 험담은 화합에 있어 최대의 적 가운데 하나다.

_____ 우리가 항상 남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험담의 수렁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

_____ 지성회 기구에서 위원회를 임명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역량을 논의한다면 이는 험담이다.

_____ 험담의 충동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결점을 떠올려야 한다.

_____ 어떤 사람이 신앙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다면,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 문제를 함께 상의해야 한다.

_____ 어떤 사람이 신앙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다면, 우리는 단지 지성회 기구에 이 사실을 통보하면 된다.

_____ 부부간에는 서로 비밀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제 9 장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단원의 목적은 참여자들이 매일 경전의 성구를 읽고 그 의미를 성찰하는 습관을 개발하고 강화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느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영성 개발로 이어진다고 바하올라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아래 구절은 우리가 이 의무에 충실할 때 받게 되는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게 해 줍니다. 암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대들은 내 말씀의 대양에 뛰어들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비밀을 풀어내고, 심해 속에 간직되어 있는 온갖 지혜의 진주들을 캐도록 하라.”²⁰

이 단원을 마치며 바하올라의 경전을 매일 조금씩 읽어 나가려는 마음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으로 《숨겨진 말씀》이 좋습니다.

■ 참고 문헌

1. 바하올라, 쇼기 에펜디의 《신성한 정의의 도래》에 수록 (월메트 바하이 출판재단 2018), pp.36-37 (영)
2. 《바하올라 선집》 (한국바하이출판재단 2012) 139.8, p.346
3. 바하올라, 《숨겨진 말씀》, 아라비아어 31번
4. 상동, 페르시아어 5번
5. 상동, 페르시아어 69번
6. 압돌바하, 쇼기 에펜디의 《신성한 정의의 도래》에 수록, p.39 (영)
7. 상동
8. 《바하올라 선집》 136.6, p.338
9. 《지성서 이후 계시된 바하올라 성한집》 (월메트 바하이 출판재단 2005), no.9.5, p.138 (영)
10. 《바하올라 선집》 137.3, p.340
11. 상동, 132.5, pp.330-331
12. 《압돌바하의 유훈록》 (월메트 바하이 출판재단 2013), p.13 (영)
13. 《바하올라 선집》 5.4, p.34
14. 압돌바하의 1911년 10월 16일, 17일 강연 《압돌바하의 파리강연집》에 수록 (월메트 바하이 출판재단 2016), no.1.7, p.2(영)
15. 압돌바하의 1911년 10월 21일 강연, 상동, no.6.7, p.19 (영)
16. 《바하올라 선집》 125.3, p.306
17. 《숨겨진 말씀》, 아라비아어 27번
18. 상동, 페르시아어 44번
19. 상동, 아라비아어 26번
20. 《바하올라 선집》 70.2, p.168

기도



목적

기도의 중요성을 성찰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강화한다.

제 1 장

루히연수원의 연속 과정은 참여자들이 봉사의 길을 걷는 것을 돕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 길에서 계속 앞으로 걸어 나가도록 추진력이 되어 주는 것은 이중의 목적의식입니다. 하나는 영적, 지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과, 다른 하나는 사회 변형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목적의 이 두 가지 측면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바하올라께서는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의 근심 걱정으로 분주해 하지 말라. 인류의 시운을 회복하고, 인간의 가슴과 영혼을 성결케 할 것들에 생각을 집중하라.”¹

또 이렇게 명료히 말씀하셨습니다.

“... 전적인 무^無로부터 나아와 존재계에 진입한 유한한 인간의 삶의 목적은 세계의 발전에 헌신하고, 일치와 조화 속에 살기 위함이다.”²

우리의 내적 존재에 관해 그분은 이렇게 천명하셨습니다.

“순수한 가슴은 거울과 같다. 사랑과 하느님 외의 일체를 끊임의 광택제로 닦아, 진리의 태양이 가슴을 비추고, 그로부터 영원의 아침이 동터 오르게 하라.”³

압돌바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 되고, 의도가 순수해야만 비로소 여러분은 신성한 은사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⁴

1. 무엇이 우리의 생각과 관심의 초점이 되어야 하나요?
-

2. 우리가 전적인 무로부터 나아와 존재계에 진입하게 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3. 우리 가슴의 거울은 무엇으로 닦아야 하나요?

4. 신성한 은사를 끌어당기는 내적 조건은 무엇인가요?

5. 다음 중 참인 것은 무엇인가요?

- _____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본 다음에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다.
- _____ 언제나 타인을 돕고 있다면, 정작 자신의 목표에 대한 시야를 놓치고 말 것이다.
- _____ 당신의 가장 가까운 벗은 당신 자신이다.
- _____ 당신을 행복하게 해 줄 것을 찾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 _____ 당신의 꿈을 쫓으라. 그것이 당신을 행복으로 인도해 주리라.
- _____ 당신이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 _____ 다소간의 선행을 행한다면, 설사 당신의 동기가 이기적이어도 무방하다.

제 2 장

앞서 언급한 이중 목적의 핵심에는 우리 모두 고귀하게 창조되었다는 확신이 자리해 있습니다. 바하올라께서 말씀하십니다.

“영^靈의 아들이! 내 그대를 부유하게 창조했거늘 어찌하여 그대는 자신을 가난으로 끌어 내리느냐? 내 그대를 고귀하게 만들었거늘 어찌하여 그대는 자신을 낮추느냐? 내 지식의 본질로부터 그대를 이끌어냈거늘 어찌하여 그대는 나 아닌 남에게서 깨달음을 구하느냐? 내 사랑의 진흙으로 그대를 빚었거늘 어찌하여 그대는 다른 이에 몰두하느냐? 그대 자신에게 눈을 돌려 막강하고, 강력하며, 자존하는 내가 그대 안에 서 있음을 발견하도록 하라.”⁵

아래의 빈 칸 채우기는 성구의 의미를 성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영의 아들이! 내 그대를 _____ 하게 창조했거늘 어찌하여 그대는 자신을 가난으로 _____? 내 그대를 _____ 하게 만들었거늘 어찌하여 그대는 자신을 _____? 내 _____의 _____로부터 그대를 이끌어냈거늘 어찌하여 그대는 _____ 아닌 남에게서 _____을 _____? 내 _____의 진흙으로 그대를 _____ 어찌하여 그대는 _____에 _____하느냐? _____에게 _____을 돌려 _____, _____, _____는 _____가 그대 안에 서 있음을 발견하도록 하라.”

자신의 영혼의 고귀한 본성에 충실하려면, 우리는 우리 존재의 거룩한 근원을 향하고 그분께 깨달음을 구해야 합니다. 이를 성취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의 하나가 기도입니다. 신앙의 수호자 쇼기 에펜디께서는 기도의 주된 목적이 “영적 미덕과 힘을 획득함으로써 개인과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영의 양식을 취하는 것이 일순위입니다. 영의 양식을 가장 잘 제공하는 것은 기도입니다.”⁶

제 3 장

하느님께서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가슴 속 소망을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압둘바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높은 기도는 오직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기도이니, 이는 하느님 혹은 지옥이 두려워서, 혹은 은총이나 천국을 바라서 올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연인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거늘, 하물며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어찌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에겐 하느님을 찬미하는 일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⁷

어떤 이의 질문에 답하시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벗에게 사랑을 느낄 때,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자 함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벗이 자신의 사랑을 알고 있음을 알더라도, 여전히 그것을 입 밖에 내어 고백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이의 마음 속 깊은 소망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기도의 충동은 인간이 하느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나라오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⁸

1. 다음 문장을 완성하세요.

가. 가장 _____ 기도는 오직 하느님에 대한 _____ 의 _____이니, 이는 하느님 혹은 _____이 두려워서, 혹은 _____이나 _____을 바라서 올리는 기도가 아니다.

나. 우리가 누군가를 _____하게 되면, _____의 _____을 부르지
_____, 하물며 하느님을 _____하게 되었을 때 어찌 _____의
이름을 _____ 않고 _____수 있겠는가.

다. 영적인 사람에겐 하느님을 _____하는 일보다 더 _____일은 없다.

2.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

3. “하느님을 찬미하는 일”이란 무슨 뜻인가요?

4.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그의 가장 열렬한 소망은 무엇인가요?

5. 기도의 충동은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요?

제 4 장

아래는 바하올라께서 계시하신 기도 중 한 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저의 기도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가린 장막을 태워버리는 불이 되고, 바다 같은 주님의 어전으로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소서.”⁹

동일한 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의 주여, 저의 기도가 생명수의 샘이 되게 하시와, 주님의 주권이 지속하는 한 제가 그 물을 마심으로써 생명을 유지하여, 주님의 여러 세계에서 어디서나 주님에 대한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하소서.”¹⁰

1. 기도는 어떤 점에서 불과 같나요? 그것은 무엇을 태워 버리나요?

2.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가리는 장막의 예를 들어 보세요.

3. 기도는 어떤 점에서 빛과 같나요? 그것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나요?

4. 기도는 생명수의 샘이 될 수 있나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무엇을 하사하나요?

제 5 장

아래에 압둘바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찰해 보세요.

“존재계에서 기도보다 더 달콤한 것은 없다. 인간은 기도하는 상태로 살아야 한다. 가장 축복받은 상태는 기도하고 간청하는 상태이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다. 가장 위대한 경지, 가장 달콤한 상태는 다름 아닌 하느님과의 대화다. 기도는 영성을 촉진하고, 마음을 깨우며, 천상의 느낌을 선사한다. 거룩한 왕국에 새롭게 매혹되게 하고, 높은 차원의 지성에 대한 감수성을 일으킨다.”¹¹

1. 존재계에서 가장 달콤한 상태는 무엇인가요?

2. ‘기도의 상태’란 무엇인가요?

3. 기도로 창출되는 몇 가지 속성을 언급해 보세요.

4. 앞의 몇 장에서 공부한 인용문을 검토하고, 기도의 본성에 대해 다섯 개의 구절을 작성해 보세요.

기도는 _____

기도는 _____

기도는 _____

기도는 _____

제 6 장

바하올라의 다음 말씀을 공부하고 성찰해 보세요.

“나의 종이며,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말씀을 그분께 가까이 이끌린 이들이 낭송한 것처럼 그대가 낭송하여 그 달콤한 음률로 그대 자신의 영혼에 불이 켜지게 하고, 만인의 마음을 매혹토록 하라. 누구든 자기 방 안에서 남몰래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암송한다면, 전능자의 향기 퍼뜨리는 천사들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향기를 널리 퍼뜨릴 것이며, 모든 올바른 사람의 가슴이 고동치게 할 것이니라. 처음에는 그가 그 영향을 모르겠지마는, 그에게 하사한 은총의 덕으로, 조만간에 그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말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느님의 계시의 신비는 힘과 지혜의 근원이신 분의 의지의 덕분으로 미리 정해져 있노라.”¹²

1. ‘낭송하다’는 무슨 뜻인가요?

2. 하느님의 말씀은 어떻게 낭송해야 하나요?

3. ‘암송하다’는 무슨 뜻인가요?

4. ‘퍼뜨리다’는 무슨 뜻인가요?

5. 기도의 달콤한 음률은 우리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6. 우리 기도의 달콤한 음률은 다른 사람의 내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제 7 장

바하올라께서 계시한 기도에서 발췌한 아래 두 구절을 암기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이시여! 저의 희망과 저의 행실을 보지 마시고, 그보다 하늘들과 땅을 포괄한 주님의 뜻을 보소서. 주여, 만백성의 주여! 주님의 가장 크신 이름에 의지하여 말씀드리니, 저는 오직 주님께서 소망하신 것만을 바라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만을 사랑하옵니다.”¹³

“주님은 너무 높이 계시어 주님께 가까이 있는 이들이 올리는 찬송조차 주님 측근의 하늘에 닿지 못하오며, 주님께 헌신적인 자들의 가슴속 새가 아무리 높이 날아올라도 주님의 대문 앞에 도달할 수 없사옵니다. 주님은 모든 속성 위에 성별되어 계시며, 모든 이름 위에 거룩히 계신 분이심을 증언하옵니다. 가장 높이 계시고 가장 영광되신 주님밖에 다른 하느님이 없사옵니다.”¹⁴

제 8 장

압둘바하의 말씀입니다.

“좋은 하느님께 기도하고 원조를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간원하고 간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섬김의 지위이며, 주께서는 그분의 최상의 지혜에 따라 무엇이든 당신께서 바라시는 대로 정하십니다.”¹⁵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영혼에는 권능이 부여되어 있으며, 기도는 영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이시여! 이 병든 자를 치유해 주소서!’라고 기도드리면, 하느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 하십니까? 어느 종이 올리건 절실한 기도라면 하느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 하십니다. 그분의 자비는 한계나 끝이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을 섬기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기 있는 초목의 기도에도 응답 하십니다. 이 초목 역시 ‘하느님이시여! 저에게 비를 내려 주소서!’라고 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초목은 자라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누구에게나 응답하십니다.”¹⁶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 가정의 영적, 물질적 진보를 위해, 그분의 인도하심을 위해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또 힘, 신앙, 봉사의 길에서 확증을 내려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하느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삶의 목표가 우리의 뜻이 그분의 뜻에 정렬되도록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뜻에 순복할 준비를 갖추게 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래 압둘바하의 말씀을 암기하려 노력하면, 어떤 상황에서나 이 말씀이 기쁨과 확신의 원천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느님께로 얼굴을 향한 그대여! 그대는 모든 것에 눈을 감고, 다만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이 계신 곳만 보라. 무엇이든지 그대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아무에게도 말고 그분께 구하라. 한번 쳐다보심으로써 그분은 오만 가지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눈길 한번 주심으로써 그분은 오만가지 불치병을 다 고쳐 주시며, 눈짓 한번으로 그분은 온갖 상처에 약을 발라주시고, 고개 한번 꺾이심으로 그분은 슬픔의 족쇄를 벗겨 주신다. 그분은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의지할 데가 따로 어디 있겠는가? 그분은 뜻대로 시행하시고, 원대로 명하시노라. 그러니 그대는 순복하여 머리 숙이고, 대자대비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나을 것이다.”¹⁷

제 9 장

지금껏 공부한 내용에 비춰볼 때 기도를 통해 하느님을 향하는 것은 영적 삶의 한 가지 핵심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아침에 기상한 후, 밤에 취침을 하기 전 하느님께 기도하는 데는 특별한 달콤함이 있습니다. 하루 중 우리가 기도에 할애하는 시간과 기도의 횟수는 우리의 필요와 영적 갈증에 따를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우리는 바하올라, 바압, 압둘바하께서 계시한 다양한 기도문에서 선택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하올라께서는 또 매일의 필수기도 세 편을 계시하셨습니다. 쇼기 에펜디의 말씀입니다.

“매일의 필수기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편 필수기도문은 한 개 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24시간마다 한 번씩 낭송해야 하며, 낮에(생오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의 시간대) 낭송합니다. 중편 필수기도문은 ‘주께서 증언하시니, 당신 외에 다른 하느님이 없다고 하셨으니’는 구절로 시작되며, 하루 세 번, 곧 아침, 낮, 저녁에 한 번씩 낭송합니다. 장편 필수기도문은 세 편 of 필수 기도문 가운데 가장 정교한 기도문으로 24시간에 한 번 낭송하며, 개인이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이 세 가지 필수기도문 가운데 어떤 기도문을 선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신자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세 편 가운데 한 편을 반드시 낭송할 의무가 있으며, 낭송할 때는 그에 수반된 구체적인 지침을 따르도록 합니다.”¹⁸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의 필수기도와 더불어 치유의 기도, 아흐마드의 서한과 같은 몇몇 기도문에는 바하올라께서 특별한 효능과 중요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낭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자는 하느님과 한층 더 긴밀한 영적 교통을 누리게 되며, 그분의 계명과 가르침에 보다 완전히 동화될 것입니다.”¹⁹

바하올라께서 계시한 세 편 of 필수기도문은 개인이 혼자 있을 때 낭송합니다. 그 외의 기도문들은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언제든지 낭송될 수 있습니다. 그룹이 함께 특정 의식에 따라 매일의 필수 기도를 낭송하는 회중^{會衆}

기도는 바하이 신앙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망자를 위한 기도는 바하이 법이 규정하는 유일한 회중기도입니다. 매장에 앞서 장례 참석자들이 침묵 속에 기립한 가운데 그들 중 한 사람이 낭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필수’란 어떤 의미인가요?

2. 바하올라께서는 매일의 필수기도문을 몇 편 계시하셨나요?

3. 우리는 매일 세 편의 필수기도를 모두 낭송해야 하나요?

4. 장편 필수기도를 낭송하기로 선택한다면 하루에 몇 번 낭송하나요?

5. 중편 필수기도를 낭송하기로 선택한다면 하루에 몇 번 낭송하나요?

6. 단편 필수기도문을 낭송하기로 선택한다면 하루에 몇 번 낭송하나요?

7. 특별한 효능을 지닌 기도문 몇 편을 언급해 보세요.

8. 단편 필수기도문을 아직 암기하지 않았다면, 지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하느님, 제가 증언하오니, 주께서 저를 창조하신 것은, 제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저의 무력함과 주님의 강력하심을, 그리고 저의 가난함과 주님의 부하심을 증언하옵나이다.

위험에서 도와주시고 자존하시는 주님밖에 달리 하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²⁰

9. 이 단편 필수기도문이 증언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 10 장

필수 기도의 법을 준수함으로써 얻는 축복과 그 외 기도문들을 개인의 기도로 낭송함으로써 얻는 영적 양식에 더해, 크고 작은 모임 속에서 낭송되는 기도문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은 지극히 고양됩니다. 바하올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은 지극한 기쁨과 우애로 함께 모여, 자비로우신 주께서 계시하신 성구를 낭송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지식의 문이 그대들의 내적 존재에 열릴 것이니, 영혼이 확고해지고, 가슴이 빛나는 기쁨으로 차오름을 느끼게 될 것이다.”²¹

전 세계적으로 벗들과 이웃들이 함께 모여 예배 모임을 갖는 경우가 수천 개씩 증가세에 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큰 기쁨을 느낍니다. 세계정 의원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배모임은 어떤 영혼이든 들어와, 하늘의 향기를 맡고, 기도의 감미로움을 체험하며, 하느님의 창조력 있는 말씀을 명상하고, 영혼의 날개를 타고 황홀경을 경험하며, 가장 사랑하는 임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영성을 고양하는 대화를 통해 우애와 공동의 대의를 향한 느낌이 조성되며, 그를 통해 “인간 마음의 도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²²

기도 전 우리는 잠시 세상의 일로부터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 중에는 마음을 온전히 하느님께 집중합니다. 기도문을 낭송한 후에는 잠시 침묵 속에 머무르며, 돌연히 다른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모임 속에서 다른 이들이 기도문을 낭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들이 낭송하는 기도문을 경청할 때는 말씀에 집중하면서 마치 자신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의 태도를 유지합니다.

1. 하느님의 말씀을 낭송하기 위해 함께 모일 때 어떤 정신으로 임해야 하나요?

2. 하느님의 말씀을 낭송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은 어떤 효과를 낳나요?

3. 예배 모임은 어떤 영혼이든

4. 예배 모임을 통해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나요?

5. 예배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영성을 고양하는 대화는 어떤 효과를 낳나요?

6. 혼자서, 혹은 모임에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보여야 할 존중의 태도에 관해 몇 가지 생각을 적어보세요.

제 11 장

첫 번째 단원은 경전의 성구를 매일 읽고 그 의미를 숙고하는 습관을 형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성찰하고,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강화했습니다. 방금 여러분은 공동 예배의 중요성에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통해, 원하신다면 봉사의 길 위에서 첫 번째 발걸음을 떼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 모임의 호스트를 자원하는 것입니다.

첫 단계로 여러분은 몇 편의 기도문을 암기해 보고, 친구들과 기도문을 나눌 기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적어도 한 개의 예배 모임에 참석하고, 모임의 열정적인 지원자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여러분 스스로 예배 모임을 열어 친구, 가족, 이웃을 초대해 정기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유대를 다지는 기회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이 연수 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두세 명의 참여자들과 그런 예배 모임을 시작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예배 모임을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가에는 어떤 공식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배모임이란 뚜렷하게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친구들이 모여 함께 기도를 올리고, 성구를 낭독하고, 영성을 고양하는 대화를 나누는 모임이라는 점입니다. 예배 모임의 주관이라는 맥락 하에서 아래에 제시된 사항 각각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시겠어요?

따뜻하고 애정 어린 초대를 하기: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기쁨이 넘치는 우애를 촉진하기:

영성을 고양하는 대화를 독려하기:

■ 참고 문헌

1. 《바하올라 선집》 43.4, (한국바하이출판재단 2012) p.123
2. 바하올라, 《신용에 관하여: 바하이 경전에서 발췌》 (세계정의원 산하 경전연구국 1987), no.21, p.5(영)
3. 《거룩한 임의 부르심: 바하올라 신비주의 선집》 (바하이 세계본부 2018) no.2.43, p.31(영)
4. 압돌바하의 1912년 5월 5일 강연, 《세계평화의 선포》 에 수록, (월메트 바하이 출판 재단 2012), p.127(영)
5. 바하올라, 《숨겨진 말씀》 아라비아어 13번
6. 쇼기 에펜디의 1935년 12월 8일자 대필 서신, 《기도와 예배의 삶》 에 수록 (세계 정의원 산하 경전연구국 2019), no.71
7. 압돌바하, J.E.에슬몬트 《바하올라와 신시대》 (월메트 바하이출판재단 2017)에 수록됨, p.106(영)
8. 상동
9. 바하올라, 《바하이 기도서》 (한국바하이출판재단 2011), p.10
10. 상동, pp.12-13
11. 압돌바하 말씀, 《서방의 별》 에 수록, vol.8, no.4 (1917.5.17), p.41(영)
12. 《바하올라 선집》 136.2, p.337
13. 바하올라, 《바하이 기도서》 p.12
14. 상동, pp.16-17
15. 압돌바하, 《기도와 예배의 삶》 에 수록, no.24
16. 압돌바하의 1912년 8월 5일 강연, 《세계 평화의 선포》 에 수록, p.345(영)
17. 《압돌바하 선집》 (월메트 바하이 출판재단 2015), no.22.1, pp.75-76(영)
18. 쇼기 에펜디의 1936년 1월 10일자 대필 서신, 《기도와 예배의 삶》 에 수록, no.61
19. 쇼기 에펜디의 1936년 1월 10일자 대필 서신, 《바하이 기도서》 에 수록
20. 바하올라, 《바하이 기도서》 p.349
21. 바하올라, 《기도와 예배의 삶》 에 수록, no.68
22. 세계정의원, 2015년 12월 29일자 대륙고문단에 보낸 서신에서 발췌, no.35.49

삶과 죽음



목적

삶은 이 세상에서의 부침이 전부가 아니요,
영혼의 진보에 진정한 의미가 있음을 이해한다.

제 1 장

영혼은 물질과 물리계 너머 상위 차원의 존재입니다. 압돌바하께서는 한 강연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는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합했던 원자들이 분리되면서 분해되기 시작하면, ‘죽음’이라 부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영혼은 이와 다릅니다. 영혼은 원소들의 결합이 아니며, 다양한 원자들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분의 실체요, 그렇기 때문에 영속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물리적 존재의 질서 너머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불멸합니다!”¹

1. “구성되어 있음”이란 무슨 뜻인가요?

2. 인간 영혼은 물리적 대상이 그런 것처럼 다양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나요?

3. 인간 영혼은 물리적 존재인가요?

제 2 장

수호자께서는 한 대필 서신에서 “인간 영혼은 수태의 때로부터 존재하게 된다”²고 말씀 하셨습니다. “수태”의 뜻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세계정의원은 한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바하이 경전에서 ‘수태’^{受胎}라는 생물학적 시점과 본성에 관해 정확히 규정하는 구절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의학적 맥락에서도 똑같이 이 용어는 엄밀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태에 대한 한 가지 이해 방식은 그것이 수정^{授精}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해 방식에서는 수태는 임신의 시작, 곧 수정과 착상 직후에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물질적 존재와 관계 맺기 시작하는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인간의 사고나 탐구를 통해 결국 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영적 세계의 신비, 영혼의 본성 자체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³

1. 인간 영혼은 언제 존재하게 되나요?

2. “수태”란 정확한 생물학적 시점을 가리키는 용어인가요?

제 3 장

영혼과 육체 간의 관계는 물리적이 아닙니다. 영혼은 몸속에 들어가거나 나가지 않으며,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육체와 맺는 관계는 마치 빛과 빛을 반사하는 거울의 관계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거울에 나타난 빛은 거울 속에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은 몸속에 있지 않습니다. 압돌바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이성적 영혼, 다시 말해 인간 영은 육체에 내재함으로써 존속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재함과 들어감은 육체의 속성이며, 이성적 영혼은 육체적 속성에서 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영혼은 결코 육체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 육체를 떠날 때 또 다른 거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 빛과 거울의 관계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거울이 온전하고 깨끗하면, 빛은 거울 속에 명료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반면 거울이 깨지거나 먼지로 덮이면, 빛은 시야에서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⁴

1. 질 문

- 가. 이성적 영혼, 다시 말해 _____은 육체에 내재함으로써 존속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은 _____ 않습니다.
- 나. _____, 다시 말해 인간의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재함과 들어감은 _____이며, 이 영적 영혼은 _____이기 때문입니다.
- 다. 애초에 영혼은 결코 _____지 않으니, 육체를 떠날 때 _____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라.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 _____의 관계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 마. 거울이 온전하고 깨끗하면, _____은 거울 속에 명료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 바. 거울이 깨지거나 먼지로 덮이면, _____.

2. 위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을 토대로 아래 진술 가운데 참인 것을 확정하세요.

- _____ 영혼은 물리계에 속해 있지 않다.
- _____ 영혼은 육체 내에 있다.
- _____ 육체는 영혼의 주인이다.
- _____ 영혼은 불멸한다.
- _____ 영혼이 배아와 관계를 맺을 때 각 개인의 삶은 시작된다.
- _____ 각 개인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로부터 삶은 시작된다.
- _____ 개인의 물리적 삶은 죽음 이후 계속된다.
- _____ 삶이란 매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 그 자체다.

3. 빛과 거울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영혼과 육체 사이의 관계를 묘사해 보세요.

제 4 장

영혼과 육체는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들이 함께 한 인간 존재를 형성합니다. 이 관계는 이 세상의 유한한 생존 기간 동안만 지속됩니다. 관계 맺음이 끝나면, 각자의 근원으로 - 육체는 흙의 세계로, 영혼은 하느님의 영적 세계로 - 돌아가며, 영혼은 그 세계에서 계속해서 진보합니다. 압둘바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영은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존속합니다.”⁵

한 강연에서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영은 육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영을 필요로 하니,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영혼은 육체 없이 살 수 있지만, 영혼 없이 육체는 죽습니다.”⁶

수호자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인간의 영혼에 관한 바하이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 영혼은 인간 배아의 형성과 함께 존재하기 시작해, 육체와 분리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전하며, 존재의 끝없는 단계를 통과해 나갑니다. 그래서 영혼의 진보는 무한한 것입니다.”⁷

1. 위의 인용문을 염두에 두고 아래 질문에 답하세요.

가. 육체는 영혼을 필요로 하나요?

나. 영혼은 육체를 필요로 하나요?

다. 우리가 죽은 후 육체와 영혼의 연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라. 죽음 후 영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마. 영혼의 진보는 언제까지 지속하나요?

바. 삶은 언제 끝나나요?

2. 아래의 진술 중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확정해 보세요.

_____ 죽음이 하나의 처벌이다.

_____ 육체와 영혼 사이의 연결은 이 세상에서의 유한한 생존 기간 동안만 지속된다.

_____ 육체는 영원한 진보를 할 수 있다.

_____ 영혼은 영원히 진보한다.

_____ 죽음은 삶의 끝이다.

_____ 우리의 육체가 다시 소생하는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_____ 죽음의 때에 영혼은 이전보다 더 자유로워진다.

_____ 삶은 죽음과 함께 끝난다.

_____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_____ 음식, 옷, 휴식, 오락은 영혼에 필수적이다.

_____ 육체가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하면 영혼은 피곤해진다.

_____ 영혼은 육체의 질병이나 쇠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_____ 인간 존재는 죽음 후 여전히 물질을 필요로 한다.

제 5 장

영혼이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지 않으며, 물리적 존재들처럼 자연법칙에 따라 작동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혼은 육체적 행위자를 통해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이는 영혼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수단은 아닙니다. 바하올라께서는 이렇게 천명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인간의 영혼은 일체의 이탈과 회귀를 초월해 있다. 그것은 고요히 있으면서도 솟구치는 것이요, 운동하지만 정지해 있는 것이다.”⁸

압돌바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 영은 두 가지 유형의 영향력과 지각력은 지녔음을 아십시오. 다시 말해, 인간 영은 작동과 이해의 두 가지 양식을 지녔습니다. 그 중 한 양식은 육체적 수단과 기관의 매개를 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합니다...”

“영이 영향을 미치고 행위 하는 또 다른 양식은 이러한 육체적 수단과 기관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⁹

1. 아래 문장의 빈 칸을 채우세요.

가. 인간 영은 일체의 _____ 과 _____ 를 초월한 것입니다.

나. 그것은 _____ 면서도, _____.

다. 그것은 _____ 하지만 _____ 것이다.

2. 영혼이 이 세계에서 지각하고 영향을 행사하는 두 가지 방식을 묘사해 보세요.

3. 영혼이 육체적 수단을 통하지 않고 영향을 미치거나 행위 하는 사례를 들어 볼 수 있나요?

제 6 장

이전 장들의 논의에 비추어 아래 바하올라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알지니, 인간의 영혼은 육체와 마음의 모든 결합을 뛰어넘어 그로부터 독립해 있다. 병중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병약함의 징후는 그의 영혼과 육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장애로 인한 것일 뿐이며, 영혼 자체는 그 어떤 육체적 질환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등잔의 불빛을 생각해 보라. 비록 외부의 사물이 빛의 진행을 간섭할 수는 있겠으나, 빛 자체는 조금도 그 힘이 감소됨이 없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육체가 겪는 모든 질병은 영혼에 내재된 힘과 능력이 현시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는 지극히 우세한 힘을 드러내고, 지상의 어떤 힘도 견줄 수 없는 영향력을 현시하게 된다. 순수하고 정련된 모든 성결한 영혼은 강력한 힘을 부여받게 되어 더할 수 없는 환희로 기뻐하게 될 것이다.”¹⁰

1. 인간 영혼이 어떻게 육체나 마음의 일체 결합에 영향을 받지 않는지, 영혼이 육체와 분리된 후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은 무엇인지 자신의 말로 설명해 주세요.

2. 물리적 육체의 죽음 후 우리는 자신의 개별성을 유지하나요?

제 7장

바하올라의 말씀입니다.

“인간 영혼과 사후의 삶에 관한 그대의 질문에 답하노라. 그대는 진리 하나를 알지니 영혼은 육신과 분리된 후에도, 슬한 격동의 세월과 세상의 영고성쇠에 영향 받지 않는 상태와 조건 하에서 하느님의 존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진보할 것이다. 영혼은 하느님의 왕국, 주권, 지배와 위력이 지속되는 한 함께 존속할 것이다. 영혼은 하느님의 징표와 그분의 속성을 드러내고, 그분의 자애와 은혜를 나타낼 것이다.”¹¹

1. 물리적 죽음 이후 영혼은 얼마나 오래 진보해 나가나요?

2. 영혼은 어떤 상태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향해 영원한 여정을 이어가나요?

3. 영혼이 그 상태에서 드러낼 속성과 징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4. 이제껏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중 참인 진술을 확정하세요.

_____ 하느님의 왕국은 영원히 존속한다.

_____ 영혼은 하느님의 속성들을 드러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

_____ 망자를 위해 올리는 기도는 그들의 영적 진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_____ 영혼은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

제 8 장

바하올라의 말씀입니다.

“알지니,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모든 듣는 귀는 어느 때고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이 같은 성스러운 음성을 들을 것이다. ‘진실로 우리는 모두 하느님께 속한 자들로 그분께 되돌아 갈 것이다.’ 인간의 육체적 죽음과 귀향에 관한 신비는 이제껏 누설되지 않았으며, 한 번도 해독된 적이 없다...

“죽음은 모든 진실한 신자에게 잔을 권하니, 그 안에 담긴 것은 진실로 생명 그 자체이다. 죽음은 기쁨을 수여하고 즐거움을 실어 나른다. 죽음은 영속하는 삶을 선물한다.

“지상에서 인간 삶의 열매를 맛본 이들에 관해 말하노라. 그 열매는 다름 아닌 한 분 참되신 하느님을 알아봄이다. 지존하신 그분의 영광이여. 이후 그들이 누리게 될 삶은 필설로 형언할 수 없다. 그에 대한 앎은 오직 모든 세계의 주, 하느님 한 분의 것이다.”¹²

“최상자^{最上者}의 아들이! 나는 죽음을 그대에게 보내는 기쁨의 심부름꾼으로 삼았다. 그런데 그대는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나는 빛을 그대를 비추려 만들었다. 그런데 그대는 어찌하여 그로부터 몸을 가리는가?”¹³

1. 다음의 진술 중 참인 것은 무엇인가요?

- _____ 인간 영혼은 하느님께로부터 와서 하느님께로 되돌아간다.
- _____ 사후의 삶에 관한 일체의 앎은 하느님의 것이다.
- _____ 확신을 지닌 신자에게 죽음은 삶이다.
- _____ 죽음은 기쁨의 전달자이다.
- _____ 죽음의 신비가 벗겨져 모두가 다 알고 있다.
- _____ 우리는 삶의 많은 은사를 귀중히 여겨야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죽음은 기쁨의 전달자이기 때문이다.
- _____ 사후의 삶에 대해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제 9 장

압둘바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모태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세계로 나아올 때 필요할 역량과 자격을 그곳에서 발달시켰습니다. 이 세계가 필요로 할 힘을 그곳에서 얻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눈이 필요하기에 태내에서 그것을 받았습니 다. 이 세상에서는 귀가 필요하기에 미리 그곳에서 그것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힘을 태내에서 부여받은 것입니다. 태내의 삶은 이 세계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 세계에 진입한 후에 그는 이 세계에 필요한 모든 힘과 사지와 기관을 그곳에서 얻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세계 너머를 준비해야 합니다. 거룩한 왕국의 세계가 필요로 하는 힘을 이곳에서 얻어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힘을 태내에서 얻었던 것처럼, 거룩한 왕국의 세계에 필요할 천상계의 모든 힘을 이 세계에서 획득해 놓아야 합니다.”¹⁴

1. 아래 진술의 참, 거짓을 확정하세요.

_____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데 필요한 모든 역량을 우리는 태내에서 부여받았다.

_____ 내세의 삶을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다.

_____ 거룩한 「왕국」의 세계에서 필요한 것은 그곳에서 획득하면 된다.

_____ 현세의 삶의 목적은 내세의 삶에 필요한 역량을 획득하는 데 있다.

_____ 진정한 삶은 사후 거룩한 「왕국」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_____ 진정한 삶은 이 세계에서 시작되어 육체적 죽음 후에도 계속된다.

2. 인간이 태내에서 미리 얻은 역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3. 사후의 삶을 위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획득해야 할 역량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 10 장

바하올라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인간에게 지워진 의무는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넘치도록 부여하신 은혜의 자기 몫에 도달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니 누구도 자신의 그릇의 크고 작음을 개의치 말라. 어떤 사람의 몫이 손안에 담길 정도라면, 어떤 사람의 몫은 잔을 채울 만하고, 또 어떤 사람의 몫은 독을 채울 수 있다.”¹⁵

1. 위의 인용문에 비추어 아래 질문에 답하세요.

가. 오늘날 각 사람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나. 여러분이 하느님께서로부터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요?

다. 위의 인용문에서 “그릇”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라. 우리가 부여받은 역량의 ‘크고 작음’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우리 몫을 받지 못하게 막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2. 아래 진술 중 참인 것은 무엇인가요?

_____ 역량의 “크고 작음”은 우리가 얼마나 총명한가를 가리킨다.

_____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나약함을 잊고 그분께 믿음을 두어야 한다.

_____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량을 계발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계에 당도했을 때 우리 영혼은 나약해져 있을 것이다.

제 11 장

바하올라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영혼의 본성에 관해 내게 질문하였다. 그대는 알지니, 진실로 영혼은 하느님의 증적이며, 천상의 보석으로서 아무리 뛰어난 학식으로도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고, 아무리 예리한 지성의 소유자라도 그 신비를 풀 수 있으리라는 희망조차 품을 수 없다. 영혼은 창조물 가운데 자신의 창조주의 탁월함을 선언하는 첫 번째 존재요, 그분의 영광을 인식하고, 그분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그분을 경모하여 그분 앞에 머리 숙이는 첫 번째 존재다.”¹⁶

1. 다음 빈칸을 채우세요.

가. 영혼은 하느님의 _____이다.

나. 영혼은 _____으로서 아무리 뛰어난 학식으로도 그 _____를 파악할 수 없고, 아무리 예리한 지성의 소유자라도 그 _____를 _____수 있으리라는 희망조차 품을 수 없다.

다. 영혼은 창조물 가운데 _____을 선언하는 _____다.

라. 영혼은 하느님의 영광을 _____하는 첫 번째 존재다.

마. 영혼은 하느님의 진리를 _____는 첫 번째 존재다.

바. 영혼은 하느님을 경모하여 _____는 첫 번째 존재다.

2. 다음 진술 중 참인 것은 무엇인가요?

_____ ‘신비를 풀다’는 알아낸다는 뜻이다.

_____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하느님을 알아보는 것은 인간의 지성이다.

_____ ‘예리함’이란 판단이 정확하고 정밀함을 의미한다.

_____ 학식이 있는 사람은 영혼의 신비를 이해한다.

_____ 오직 위대한 철학자들만이 하느님의 탁월성을 선언할 수 있다.

_____ 영혼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영혼에 대해 명상할 필요가 없다.

제 12 장

바하올라의 말씀입니다.

“그대들은 마치 힘센 날개를 펴덕이며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라, 완전하고 기쁨에 찬 확신으로 끝없는 창공을 종횡무진 날아다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물과 진흙을 찾아 갈급히 땅을 향하고선, 제 욕망의 그물에 걸려들어 자신이 왔던 세계를 향해 다시 날 수 없음을 알게 된 새와 같다. 새는 원래 하늘의 거주자이나, 때 묻은 날개를 누르는 짐을 털어낼 힘을 잃어 이제는 먼지 위에 등지를 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종들이여, 아집과 헛된 욕망의 흙으로 그대들의 날개를 더럽히지 말고, 시기와 증오의 먼지가 그것을 얼룩지지 않게 하여, 내 신성한 지식의 하늘로 날아오르는 데 그대들이 방해받지 않게 하라.”¹⁷

1. 아래의 빈 칸을 채우세요.

- 가. 위 성구에서 바하올라께서 언급하신 ‘새’란 인간의 _____을 상징한다.
- 나. 새는 원래 _____의 거주자이다.
- 다. 새의 날개가 더럽혀지면, 새는 어쩔 수 없이 _____에 등지를 틀려고 한다.

2. 아래 질문에 답하세요.

- 가. 영혼의 ‘날개’는 어떻게 하여 “더럽혀” 질 수 있나요?

- 나. ‘물과 진흙’과 같이, 영혼의 날개를 짓누르는 짐의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세요.

다. 신성한 지식의 하늘로 다시 날아오르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 영혼은 천상에 있는 자신의 고향을 왜 지상의 먼지와 맞바꾸려 하게 될까요?

3. 다음 중 참인 진술을 확정하세요.

_____ 세상에 대한 집착은 우리의 영적 진보를 방해한다.

_____ 아집과 헛된 욕망은 우리의 신성한 지식의 하늘로 날아오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아당긴다.

_____ 시기와 증오는 인간의 자연적 특징으로서 영혼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

_____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초연함으로써 광대한 하늘로 날아오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짐을 떨쳐 버릴 수 있다.

_____ 영혼의 고향은 이 세계다.

제 13 장

바하올라의 말씀입니다.

“이 세계와 그 안에 생동하는 만물을 창조하신 후, 그분께서는 제약받지 않으시는 최고 의지를 직접 발휘하시어, 당신을 알고 당신을 사랑하는 독특한 특성과 능력을 인간에게 부여하셨다. 이 능력이 만물의 기저에 흐르는 창조의 충동이자 제일의 목적이다.... 그분께서는 모든 창조물 하나하나의 내적 실재에 당신의 이름 중 하나의 빛을 비추시고, 그것이 당신의 한 가지 속성의 광휘를 담게 하셨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당신의 모든 이름과 모든 속성의 광휘를 비추시어, 그가 당신 자신을 되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셨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이토록 크나큰 충애를 입고, 영속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선택되었다.”¹⁸

1. 아래 빈칸을 채우세요.

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_____ 독특한 특성과 능력을 부여하셨다.

나. 하느님께서 _____의 내적 실재에 _____의 빛을 비추시고, 그것이 _____의 광휘를 담게 하셨다.

다. 하느님께서 인간의 실재에는 _____의 광휘를 비추시어, 그가 _____는 거울이 되게 하셨다.

2. 이제 다음의 질문에 답하세요.

가. 하느님의 속성을 몇 가지를 언급해 보세요.

나. 인간 영혼이 되비출 수 있는 하느님의 속성을 몇 가지 언급해 보세요.

다. 어떻게 하면 이 속성들이 드러날 수 있게 되나요?

라. 어떤 위대한 은총을 받도록 인간이 선택받았나요?

2. 다음 진술 중 참인 것은 무엇인가요?

_____ 인간은 여느 창조물과 다를 바 없다.

_____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는 역량은 전 창조계 기저에 흐르는 창조의 충동이자, 제일의 목적이다.

_____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속성 중 하나를 담도록 창조되었다.

_____ 인간 영혼은 하느님의 모든 속성을 되비출 수 있다.

제 14 장

바하올라의 말씀입니다.

“신성한 은총의 「태양」이자 천상의 인도의 「원천」이 인간의 실재에 부여하신 이러한 활력은 인간 내면에 잠재해 있으니, 마치 불꽃이 양초 안에 감추어져 있고, 빛이 등잔 안에 잠복해 있는 것과 같다. 이 광휘는 세속적 욕망에 의해 흐려질 수 있으니, 마치 거울 표면에 얹은 먼지와 티끌 때문에 거울이 태양빛을 되비추지 못하는 것과 같다. 양초도 등불도 도움 없이 스스로 불꽃을 일으킬 수 없으며, 거울 역시 표면의 티끌들을 스스로 없앨 수 없다. 등잔의 심지에 불이 붙여지기 전까지 등잔은 사방을 밝히지 않으며, 거울 표면에 얹은 먼지가 닦여지기 전까지 거울에는 태양의 상^상이 비치지 않고, 그 빛과 영광이 반사되지도 않음은 명백하고 분명한 사실이다.”¹⁹

1. ‘잠재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2. 인간의 영혼에 잠재된 능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3. 등불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나요?

4. 거울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나요?

5. 등불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거울이 빛을 반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등불이나 거울이 스스로의 힘으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8. 이 두 가지 예를 인간 영혼의 상태와 어떻게 관련지을 수 있나요?

9. 영혼의 잠재력이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인가요?

제 15 장

바하올라의 말씀입니다.

“「태고의 존재」에 대한 지식의 문^門은 이제껏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인간의 면전에 굳게 닫혀 있을 것이다. 인간의 그 어떤 이해력도 그분께서 계신 성스러운 궁정에까지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비의 증표요, 자애의 증거로서 신성한 인도의 「태양」이자, 당신의 단일성의 「상징」이신 분들을 인류에게 현시하시고, 이들 성결한 존재들에 대한 지식이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지식과 동일한 것이 되도록 정하셨다. 누구든 이분들을 알아본 사람은 하느님을 알아본 사람이다. 누구든 이분들의 부름에 귀 기울인 사람은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이요, 누구든 이분들의 계시의 진리를 증언한 사람은 하느님 자신의 진리를 증언한 사람이다. 누구든 이분들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이요, 누구든 이분들을 불신한 사람은 하느님을 불신한 사람이다. 이들 한 분 한 분은 이 세계와 하늘의 영토를 연결하는 「하느님의 길」이요, 하늘과 땅의 왕국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그분의 「진리의 표준」이다. 이분들이 바로 사람들 가운데 임하신 하느님의 현시요, 하느님의 진리의 증거요, 하느님의 영광의 증적이다.”²⁰

1. 위의 인용문을 염두에 두고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가. 우리가 하느님을 직접 아는 것이 가능한가요?

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을 알 수 있나요?

다. ‘신성한 인도의 태양’ 몇 분을 이름해 보세요.

라. 하느님의 현시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은 것과 같나요?

마. 우리가 하느님의 현시자들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누구로부터 멀어지는 것과 같나요?

2. 다음의 구절을 완성하세요.

가. 태고의 존재이신 분에 대한 지식의 문은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인간의 면전에 _____.

나. 그 어떤 인간의 이해력으로도 _____에까지 미치지 못할 것이다.

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의 _____의 증표이자 _____의 증거로 당신의 현시자들을 보내셨다.

라. 하느님의 현시자들에 대한 앎은 _____과 동일하다.

마. 누구든 그분들을 알아본 이는 _____ 것이다.

바. 누구든 그분들의 부름을 듣는 이는 _____ 것이 된다.

사. 그분들 한 분 한 분은 _____

_____.

3. 다음 중 참인 것은 무엇인가요?

- _____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 _____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으며, 그것으로 우리가 진보하기에 충분하다.
- _____ 우리는 하나님의 현시자를 알아봄으로써 영적으로 진보할 수 있으며, 별다른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
- _____ 우리는 하나님의 현시자를 알아보고,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노력을 기울일 때 영적으로 진보할 수 있다.
- _____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있다.
- _____ 인간은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
- _____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 계신다.
- _____ 우리가 하나님의 현시자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제 16 장

바하올라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예언자들과 사자^{使者}들은 인류를 진리의 곧은길로 인도하려는 유일한 목적으로 내려오신 분들이다. 이분들의 계시의 근본 목적은 모든 사람의 교육이니,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죽음의 시각에 이르렀을 때 지극한 순결과 성결과 완전한 초연의 상태에서 가장 높이 계신 분의 보좌에 오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²¹

또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최상의 「부적^{符籍}」이다. 그러나 올바른 교육의 부재로 인하여 인간 본래 지닌 것을 빼앗기게 되었다. 하느님의 거룩한 「입」이 이르신 한 마디 말씀을 통하여 인간은 존재의 부름을 받았고, 또 한 마디 말씀에 의하여 인간은 교육의 근원이신 분을 알아보도록 인도되었으며, 또 다른 한 마디 말씀에 의하여 인간의 지위와 운명이 보호받게 되었다. 위대한 존재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인간을 이루 값어치할 수 없는 진귀한 보석들로 가득 찬 광산으로 여기라. 오직 교육만이 그 광산의 보석들을 드러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인류가 유익을 얻게 할 수 있다. 누구든 하느님의 신성한 의지의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경전들의 계시를 명상해 본다면, 그 한결같은 목적은 모든 사람이 하나의 영혼으로 여겨지게 되어 ‘왕국은 하느님의 것’이라는 말씀이 모든 가슴에 새겨지고, 신성한 은총과 은혜와 자비의 빛이 전 인류를 감싸게 되는 것임을 기꺼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²²

1. 하느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과 사자들을 내려 보내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2. 그분들의 계시의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요?

3. 「부적^{符籍}」의 뜻은 무엇인가요?

4. 올바른 교육의 부재가 초래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5. 올바른 교육이 귀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6. 인간 교육의 거룩한 근원은 무엇인가요?

7. 무엇이 우리의 고귀한 운명인가요?

8. 교육이 드러낼 수 있는 보석들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9. 경전의 성스러운 말씀을 명상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꺼이 인정하게 되나요?

제 17 장

바하올라의 말씀입니다.

“나아가, 그대는 내게 육체와 분리된 영혼의 상태에 관해 질문하였다. 그대는 진리 하나를 알지니, 하느님의 길을 걸었던 인간의 영혼은 반드시 사랑하는 임의 영광으로 돌아가 모이게 된다. 하느님의 의로우심에 의지하거니와! 그러한 영혼은 어떤 빛도 표현할 수 없고, 어떠한 입도 형언할 수 없는 지위에 도달할 것이다. 하느님의 대업에 충직하게 남아, 그분의 길에서 흔들림 없이 확고했던 영혼은 하늘에 오른 후 크나큰 힘을 소유하게 되며, 전능자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그를 통해 유익을 얻게 된다.”²³

1. 다음의 문장을 완성하세요.

가. 하느님의 길을 걸었던 영혼들은 반드시 _____으로 돌아가 모이게 된다.

나. 그러한 영혼은 _____는 지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다. _____의 _____에 _____하게 남아, _____에서 흔들림 없이 _____했던 _____은 _____후 크나큰 _____을 소유하게 되며, _____께서 _____하신 모든 세계가 그를 통해 _____을 얻게 된다.

제 18 장

바하올라의 말씀입니다.

“육체로부터 분리된 시각에 세상 사람의 헛된 공상에서 성별되고 성화된 영혼은 큰 축복을 받았다. 그러한 영혼은 자신의 창조주의 뜻에 따라 살고 또 움직이다가, 가장 높은 낙원에 들어설 것이다. 「천상의 처녀들」과 가장 높은 저택의 거주자들이 그의 주위를 둘러쌀 것이며, 「하느님의 예언자들」과 그분께 택함을 받은 분들이 다가와 교제를 청할 것이다. 영혼은 그분들과 자유로이 대화를 나누고, 모든 세계의 주인 하느님의 길에서 자신이 감당했던 일들을 상세히 아뢰게 될 것이다.”²⁴

“탐구자는 죄인의 낮은 상태를 결코 경멸해서는 안 되며 그를 용서해야 한다. 이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종말이 어떠한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죄인이 임종의 시간에 신앙의 본질에 도달하여, 불멸의 잔을 들이키며 높은 곳에 있는 하늘의 대군중을 향해 날아 올라갔던가! 한편, 얼마나 많은 헌신적인 신자가 육신의 옷을 벗기 직전 급전직하 하여 가장 깊은 불속에 던져졌던가!”²⁵

1. 우리 영혼은 육체와 분리될 때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하나요?

2. 헛된 공상은 예컨대 어떤 것인가요?

3. 헛된 공상에서 성화된 영혼은 사후 어떤 상태에서 살고 움직이게 되나요?

4. 그러한 영혼은 누구와 사귀게 되나요?

5. 그러한 영혼은 「하느님의 예언자들」과 그분께 택함을 받은 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까요?

6. 우리는 지상에서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미리 알고 있나요?

7. 우리에게 예정된 영원한 삶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 19 장

압둘바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영은 이 원소로 이루어진 틀을 벗어 던진 후, 모든 존재자와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진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자의 영혼이 진보하고, 용서 받으며, 신성한 총애, 은사, 은혜의 수혜자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하올라께서 계시하신 기도 중 내세로 올라 간 이들을 위해 하느님의 용서와 사면을 간원하는 기도문이 있는 이유입니다. 현세의 인간에게 하느님이 필요한 것처럼 내세의 이들에게도 그분이 필요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늘 궁핍한 상태에 있으며, 하느님께서서는 현세나 내세나 늘 그들로부터 전적으로 독립해 계십니다.”²⁶

우리가 망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 20 장

압둘바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 영혼이 이 덧없는 먼지 더미를 벗어나 하느님의 세계로 오르게 되면, 장막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요, 무수한 진리가 알려질 것이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모든 일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요, 숨겨진 진리가 이해될 것입니다.

“모태 내의 존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귀가 듣지 못하고, 눈이 보지 못하며,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모든 지각을 결여했는지. 그런데 어둠의 세계를 벗어나 빛의 세계로 이동하면 비로소 그의 눈은 보고, 귀는 들으며, 입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한한 세계를 벗어나 하느님의 왕국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는 영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 보는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듣게 되며, 이전에 알 수 없었던 모든 진리가 그의 앞에 명백하고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²⁷

1. 아래 빈칸을 채우세요.

가. 인간 영혼이 이 세계를 떠나면,

- 장막들은 _____.
- 무수한 진리가 _____.
-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일들이 _____.
- 숨겨진 진리는 _____.

나. _____ 내에서 우리는 귀가 _____, 눈이 _____,
입이 _____ 니다.

다. 우리가 이 세계에 태어나면 우리의 눈은 _____, 귀는 _____,
입은 _____.

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의 왕국으로 옮겨지면, 우리는 _____
_____.

마. 그렇게 되면 우리의 보는 눈은 _____ 우리의 귀는 _____
_____, 이전에 알 수 없었던 모든 _____가 우리 앞에
_____하고 _____히 드러날 것입니다.

2. 다음 진술 중에 참인 것을 결정하세요.

_____ 우리가 모태 내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해 알고 있었다.

_____ 사후 우리의 상태는 이 세계에 있는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진실이다.

_____ 사후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다.

_____ 사후 우리는 이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되돌아온다.

제 21 장

바하올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인간 영혼이 육신과 분리된 후, 여전히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가에 관해 내게 물었다. 그대는 알지니 「진홍빛 방주^{方舟}」안에 들어가 좌정한 바하의 사람들의 영혼은 서로와 긴밀히 교제하고 교유할 것이요, 삶과 열망, 목적과 수고에서 일체가 되어 마치 하나의 영혼과 같이 되리라. 그들이 진정으로 해박한 이요, 해안을 지닌 이요, 이해력을 입은 이들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께서 정하신 뜻이다.

하느님의 방주의 동거자인 바하의 사람들은 서로의 상태와 조건을 익히 알고 있으며, 친밀함과 우애의 끈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들의 상태란 신앙과 행실에 달린 것이다. 동일한 단계와 지위에 있는 이들은 서로의 능력과 성격, 공로와 공적을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보다 낮은 단계에 있는 이들은 보다 높은 단계에 있는 이들의 지위를 온전히 인식할 수도 없고, 그 공적을 옳게 평가할 수도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몫을 받을 것이다. 하느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하느님, 만인의 통치주요, 최강자이시고 항상 용서하시고 가장 자비로우신 분을 향해 자신의 영혼이 비상할 때까지 그분의 사랑 안에서 확고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²⁸

1. 내세에서 우리는 이 세계에서 알았던 사람들을 알아보게 될까요?

2. 영혼들 사이의 유대는 내세에서 얼마나 긴밀해질까요?

3. 내세에서 영혼들 사이의 차이와 구별은 무엇에 달려 있나요?

4. 하느님의 은혜를 박탈당하게 될 이가 있나요?

제 22 장

바하올라의 말씀입니다.

“나의 종들이여! 오늘날 이 세상에 그대들의 바람과 어긋나는 일이 하느님의 예정하심으로 일어날지라도 그대들은 슬퍼하지 말라. 열락의 지복과 천상의 기쁨을 누릴 날들이 그대들을 위해 확실하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눈부신 성스러운 세계들이 그대들의 눈앞에 드러날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대들이 현세와 내세에서 그 세계의 유익을 나누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지속되는 은혜의 자기 몫을 얻도록 예정하셨다. 그대들은 틀림없이 그 하나하나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²⁹

1. 다음 진술 중 참인 것을 확정하세요.

_____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슬퍼해야 한다.

_____ 좋은 나쁜든 일체는 하느님께서 예정하셨다.

_____ 행복한 날들이 우리에게 예비 되었다.

_____ 우리는 성스럽고, 영적으로 눈부신 여러 세계들을 확실히 보게 될 것이다.

_____ 현세와 내세에서 성스럽고, 영적으로 눈부신 세계들의 유익을 얻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2. 우리의 바람과 배치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슬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바하올라께서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제 23 장

이 단원에서 여러분은 인간 삶의 의미에 관해 성찰해 보셨습니다. 영혼의 본성,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적, 영적 자질들을 개발해야 할 필요, 영광되고 기쁨이 충만한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에 대해 이제 여러분은 상당한 배움을 얻으셨습니다. 이 책의 두 번째 단원에서 우리는 이중 목적 - 스스로 자신의 영적, 지적 성장을 추구하는 일과 사회 변형에 공헌하는 일 - 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개념으로 돌아가 봅시다. 영혼의 진보에 관해 여러분이 얻으신 통찰에 비추어, 이 두 가지 측면의 삶의 목적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 어떤 중요성을 띠는지 생각해 보실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성찰하신 내용을 가지고 그룹 내에서 아래 주제에 관해 논의하시면 한층 더 유익을 얻으실 것입니다.

1. 영적 자질을 개발하기
2. 하느님의 법을 준수하기
3. 인류의 안녕에 공헌하기
4. 봉사의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 참고 문헌

1. 압둘바하의 1911년 11월 10일 강연, 《파리강연집》에 수록 (윌메트 바하이 출판 재단 2016) no.29.12-13, p.109(영)
2. 쇼기 에펜디의 1946년 4월 1일자 대필 서신, 《인도의 빛》 (뉴델리 바하이 출판 재단, 2010) no.1820, p.537(영)
3. 세계정 의원의 2016년 7월 28일 대필 서신에서 발췌함.
4. 《압둘바하 질의응답록》 (윌메트 바하이 출판 재단 2016) no.66.3 pp.352-53 (영)
5. 상동 no.38.5, p.220
6. 압둘바하의 1911년 11월 9일 강연, 《파리강연집》에 수록, no.28.16, p.104(영)
7. 쇼기 에펜디의 1937년 12월 31일자 대필 서신, 《인도의 빛》에 수록, no.680, p.204
8. 《바하올라 선집》 (한국바하이 출판재단 2012) 82.8, pp.195-96
9. 《압둘바하 질의응답록》 no.61.1-2, p.334(영)
10. 《바하올라 선집》 80.2, p.188
11. 상동, 81.1, pp.189-90
12. 상동, 165.1-3, p.389
13. 바하올라 《숨겨진 말씀》 아라비아어 32번
14. 압둘바하의 1912년 7월 6일 강연, 《세계평화의 선포》에 수록됨 (윌메트 바하이 출판재단 2012), pp.315-16(영)
15. 《바하올라 선집》 5.4 p.34
16. 상동, 82.1, pp.190-91
17. 상동, 153.6, p.370
18. 상동, 27.2, p.93
19. 상동, 27.3, pp.93-4
20. 상동, 21.1, p.77
21. 상동, 81.1, pp.190-91
22. 상동, 122.1, p.300
23. 상동, 82.7, p.195
24. 상동, 81.1 p.190
25. 상동. 125.3, p.307
26. 《압둘바하의 질의응답록》 no.62.3, p.340-41(영)
27. 《압둘바하 선집》 no.149.3-4, pp.246-47(영)
28. 《바하올라 선집》 86.1-2 p.204
29. 상동, 153.9, p.372